

신묘사행(辛卯使行) 「도중행렬도(道中行列圖)」에 나타난 통신사 편복 관모 연구

박 선 희* ·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Headgear in the Painting of *Tongshinsa* Parade in 1711

Sun Hee Park* · Na Young Hong⁺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투고일: 2010. 10. 5, 심사(수정)일: 2010. 12. 24, 게재확정일: 2011. 1. 31)

ABSTRACT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identity of everyday headgear, which is often found in many paintings of *Tongshinsa*, Joseon diplomatic missions to Japan, in the 18th century. That resembles *Yu-geon* 儒巾, but on the top of the headgear are lappets like a roof. The study proceeded as follows: 1) The painting of *Tongshinsa* parade in 1711 was used to analyze wearers of everyday headgear because titles of position are shown for each one. 2) Personal records of *Tongshinsa* in the 18th century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cases of everyday headgear. 3) Cases of everyday headgear in literature around the 18th century were examined. Those researches revealed three findings: 1) The names of everyday headgear with a roof shaped top are *Gohu-gwan* 高厚冠 and *Yeonyeop-gwan* 蓮葉冠. 2) Among *Tongshinsa*, wearers of *Gohu-gwan* or *Yeonyeop-gwan* are medical staff, interpreters, painters, and secretaries. However, it doesn't seem to have been distinction between the two types according to social class and position. 3) People wore everyday headgear, that resembled the two types in appearance, such as *Minja-geon* 民字巾, *Sunyang-geon* 純陽巾, *Hwayang-geon* 華陽巾, *Jeon-geon* 戰巾, or *Jang-geon* 將巾 in China and Joseon around the 18th century. Among them, *Sunyang-geon* and *Hwayang-geon* seem to have had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Gohu-gwan* and *Yeonyeop-gwan* in terms of shape and character of wearers. The analysis of the research findings led to the two following conclusions: 1) *Gohu-gwan* and *Yeonyeop-gwan* were worn as one of everyday headgear to represent appearances of a scholar. 2) *Gohu-gwan* and *Yeonyeop-gwan* could be changed versions of the similar everyday headgear or different names of them.

Key words: *Gohu-gwan*(高厚冠), *Yeonyeop-gwan*(蓮葉冠), *Tongshinsa*(通信使), everyday headgear(便服帽), 18th century(18世紀)

I. 서론

조선 후기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외교사절인 통신사(通信使)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육로로 이동한 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쓰시마[對馬島]를 거쳐 오사카[大坂]까지 간 후, 배를 바꿔 강을 거슬러 올라가 요도우리[淀浦]에 상륙, 이후 다시 육로로 에도[江戸·도쿄]까지 이동하였다. 행차시 사절단의 옷차림은 그들의 사행록¹⁾을 분석해 볼 때, 교토[京都·西京]·에도에 들어갈 때와 에도에서 국서(國書) 전달을 위해 간파쿠[觀白]²⁾의 성으로 나아갈 때 등 관복(官服)을 착용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편복(便服)을 착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통신사의 모습은 현전하는 유물(遺物)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신사의 일본 방문은 에도 시대의 중요한 행사였으므로 일본 화가들은 이들의 모습을 병풍, 두루마리[繪卷], 우키요에[浮世繪], 그리고 신사(神社)에 봉납용으로 제작한 에마[繪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화하였기 때문이다. 작품의 내용으로는 통신사가 행진하는 모습을 그린 통신사행렬도(通信使行列圖), 통신사가 탄 배가 바다와 강을 오가는 장면을 그린 선단도(船團圖), 말타기 묘기를 그린 마상재도(馬上才圖), 통신사의 초상화, 통신사가 일본인과 시문을 교류하는 장면을 그린 시문증답도(詩文贈答圖), 정장 및 향응복식을 입은 모습을 그린 통신사복식도(通信使服飾圖) 등이 있다.³⁾ 이러한 일본 작품 중에는 조선에서 파견한 통신사를 주제로 했으나, 차림새를 일본식으로 하거나 외국인의 이미지를 강조한 나머지 네덜란드 등 서양식으로 묘사한 경우도 종종 나타나므로, 연구 자료로 활용할 때는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통신사 복식에 대한 연구의 경우 통신사 복식 전반을 다룬 궁민봉의 연구 이후, 이주영의 연구에 통신사 일행의 평상시 복식 분석이 일부 포함된 것을 제외하고는 통신사 일행의 관복을 중심으로 한 의례에 따른 복식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⁴⁾ 상대적으로 편복 특히 편복 관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일반 편복 관모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대표적 편복 관모인 정자관, 와룡관, 방관 등을 중심

으로 관모의 수용과 전파를 다룬 연구나 고대로부터 조선시대까지 각종 관모의 기원과 변천에 대한 연구 등은 이루어져 있으나,⁵⁾ 세부적인 연구는 고대의 관모를 제외하고는 흑립(黑笠), 감투 등 일부에 한정되어,⁶⁾ 통신사 사행원들이 착용한 것과 같은 편복 관모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통신사 행렬도 중 「도중행렬도」〈그림 1〉⁷⁾을 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행렬도는 숙종 37(1711)년 신묘사행(辛卯使行) 때 바쿠후(幕府)가 쓰시마번(藩)에 명하여, 쓰시마번 소속 화가 다와라 기자에몬(俵喜左衛門)이 제작 책임을 맡아 40여명의 마치에시(町繪師)를 동원해 제작한 것 중 하나로 현장에서 관찰하고 정확히 묘사하여 그린 기록화로 평가되고 있다.⁸⁾ 또한 행렬의 선두에서 후미까지 인물의 직책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복식 착용자 분석에 유용하다.



〈그림 1〉 俵喜左衛門, 도중행렬도(부분).
조선시대 통신사 행렬, 2005, p. 43.

분석은 행렬도에 나타난 인물 중 일본인과 우립(羽笠), 전모(氈帽)를 착용한 군관, 기수(旗手), 취수(吹手) 등을 제외하고, 삼사(三使)와 역관(譯官), 의원(醫員), 화원(畫員), 제술관(製述官), 사자관(寫字官), 서기(書記)가 착용한 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로 18세기에 파견된 4차례의 통신사의 사행록 8편⁹⁾을 분석하여 편복 관모 착용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계림창화집(雞林唱和集)』·『동사여담(東槎餘談)』 등 통신사와 일본 문인들 사이의 필담(筆談)·시문(詩文)을 엮은 문집에 실린 인물 초상을 이용하였다. 이 밖에 『삼재도회(三才圖會)』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하여, 『무

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임하필기(林下筆記)』 등 18세기 전후 문헌을 조사하여 유사 관모 착용 사례를 분석,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8세기 전후 통신사 관련 기록과 동시대의 자료를 종합하여 「도중행렬도」에 나타난 편복 관모의 명칭과 특성, 착용자의 범위를 살피고, 착용 유래를 추측하여 당시 관모 착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도중행렬도」에 나타난 편복 관모 사례 분석

1. 신묘사행 「도중행렬도」

숙종 37(1711)년 신묘사행을 그린 「도중행렬도」에서 편복 관모 착용자 및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29명이었다.

행렬도에 표시된 직책으로 분류하면 정사, 부사, 종사의 삼사와 상상관 3명, 상판사(上判事)¹⁰⁾ 4명, 양의(良醫)와 의사(醫師)¹¹⁾ 각 1명, 제술관 1명, 사자관 2명, 서기 3명, 화사(畫師) 1명, 판사(判事) 10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해당하는 인원을 당시 사행 기록인, 부사 임수간(任守幹)이 쓴 『동사일기(東槎日記)』에서 찾아보면 삼사와 당상역관 4명, 상통사 3명, 의원 3명, 제술관 1명, 사자관 2명, 서기 3명, 화원 1명, 차상통사 2명, 압물통사 4명이며, 소통사 1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행렬도와 『동사일기』의 인원구성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이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행렬도의 상상관 3명과 상판사 4명은 각각 사행록의 당상역관 4명, 상통사 3명에 해당되는데, 신묘사행의 경우 당상역관이 3명 파견되는 다른 사행의 경우와 달리 4명 파견되었으므로, 추가로 파견된 1명의 당상역관을 행렬도에서는 상판사로 표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의원의 경우 행렬도에는 현교(懸轎)를 탄 양의와 말을 탄 의사로 모두 2명이 나타나나, 『동사일기』에는 정원 외로 추가된 가정의원(加定醫員) 1명이 더해져 3명이다. 그러므로 행렬도에는 의원 1명이 누락되었거나, 판사로 표기되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행렬도의

판사는 사행록의 차상통사, 압물통사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렬도의 판사 수는 10명인데 비해 『동사일기』의 차상통사, 압물통사는 모두 6명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의원의 경우와 더불어 소통사 10명 중 일부 혹은 다른 직책의 인물이 판사로 표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표 1> 「도중행렬도」와 『동사일기』에 나타난 원역 비교 (인원수)

도중행렬도	동사일기
정사·부사·종사 (3)	정사·부사·종사관 (3)
상상관 (3)	당상역관 (4)
상판사 (4)	상통사 (3)
판사 (10)	차상통사 (2) 압물통사 (4) [소통사 (10)]
양의 (1)	가정의원 (1)
의사 (1)	의원 (2)
제술관 (1)	제술관 (1)
사자관 (2)	사자관 (2)
서기 (3)	서기 (3)
화사 (1)	화원 (1)

<표 2> 신묘사행 「도중행렬도」에 나타난 편복 관모

	관모 ①	관모 ②	관모 ③
관모의 종류			
착용자수 (명)	15	4	1

편복 관모 착용 사례를 분석해보면, 먼저 옥교(屋轎)·현교 등 가마를 타서 쓰개의 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삼사를 포함한 9명이다. 현교를 탄 6명 중 상상관으로 표시된 사람은 당상역관 3인이며, 상판사로 표시된 1명의 경우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역시 당상역관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 제술관과 양의 각 1명이 현교를 타고 있었다.

쓰개의 형태를 확인할 수 없는 9명을 제외한 20명의 관모를 형태별로 분류하면 <표 2>와 같이 3종류로 나뉜다. 관모①은 모정(帽頂)에 맞배지붕 혹은 책을 펼쳐 엮은 것과 같은 형태로, 늘어진 것이 앞뒤에 위

〈표 3〉 「도중행렬도」에 나타난 관모 종류별 착용자

	도중행렬도			동사일기					
	착용 관모 (인원수)	직책 (인원수)	직책	직함	관품	성명			
착용자 추정 가능한 예	관모①(7)	사자관(2)	사자관	상호군	정3품	이수장			
				상호군	정3품	이이방			
		서기(3)	서기	봉상판관	종5품	홍순연			
				전 현감	종6품	엄한중			
	관모②(2)	상판사(2)	상통사	한학	종6품	남성중			
				관관	종5품	정창주			
				전 판관	종5품	홍순명			
관모③(1)	화사(1)	화원	부사용	종9품	현덕윤				
			부사과	종6품	박동보				
착용자 추정 불가능한 예	관모①(8) 관모②(2) 관모③(1)	판사(10)	의사(1)	의원	전 주부	종6품	현만규		
					부사용	종9품	이위		
					전 첨정	종4품	최한진		
			관모①(8)	관모②(2)	관모③(1)	차상통사	전 주부	종6품	김시량
							전 첨정	종4품	김현문
							전 직장	종7품	조득현
			관모②(2)	관모③(1)	관모①(8)	압물통사	전 직장	종7품	박태신
							전 참봉	종9품	김시경
							전 참봉	종9품	김시경

치하여 옆에서 보았을 때 八형을 이룬다. 관모② 역시 모정에 얹은 것이 앞뒤로 늘어져 옆에서 보았을 때 八형을 이루는데, 늘어진 부분이 꽃잎 또는 물결처럼 표현되어 있다. 관모③의 경우 모정에서 늘어뜨린 부분이 물결처럼 표현되어 관모②와 비슷하나, 모정이 사각형으로 평평하게 표현되어 있어 늘어뜨린 것이 4면에 모두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관모②와 관모③은 같은 종류 관모를 달리 표현한 것일 수도 있으며, 다른 형태의 관모일 가능성도 있다.

관모①은 20명 중 15명이 착용하여 관모②, ③에 비해 착용사례가 많았다. 관모① 착용자는 판사 7명, 상판사·사자관 각 2명, 서기 3명, 의사 1명으로 구성되며, 관모② 착용자는 판사 2명, 상판사·화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관모③ 착용자는 판사 1명이었다.

〈표 3〉은 「도중행렬도」의 각 인물에 표시된 직책에 『동사일기』의 신묘 통신사 좌목(辛卯通信使座目)을 대입하여, 관모 종류에 따라 착용자를 분석한 것이다. 먼저 관모의 종류에 따라 착용자를 알 수 있는 경우와 알 수 없는 경우로 나누었다. 또한 통신사 수행원들은 맡은 일과 품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좌목에 나타난 직함을 기준으로 품계를 함께 살펴보았다.

관모① 착용자 15명 중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7명이다. 사자관 2명은 상호군(上護軍) 이수장(李壽長)과 이이방(李爾芳)으로 정3품, 서기 3명은 봉상판관(奉常判官) 홍순연(洪舜衍), 전 현감(前縣監) 엄한중(嚴漢重), 부사과(副司果) 남성중(南聖重)으로 종5품과 종6품에 해당된다. 정사와 부사 소속 상통사는 판관(判官) 정창주(鄭昌周), 전 판관(判官) 홍순명(洪舜明)으로 종5품에 해당된다.

관모② 착용자 4명 중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2명이다. 종사 소속 상통사는 부사용(副司勇) 현덕윤(玄德潤)으로 종9품이며, 화원 1명은 부사과 박동보(朴東普)로 종6품에 해당된다.

삼사 소속과 관계없이 행렬의 후미에 행진하고 있는 인물들 중 신원이 확인된 화원과 서기를 제외하면 판사 10명과 의사 1명이 남는데, 관모① 착용자 8명, 관모② 착용자 2명, 관모③ 착용자 1명으로 구성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차상통사 2명과 압물통사 4명,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소통사나 다른 직책의 인물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의사 1명은 관모①을 쓰고 있는데, 종6품 전 주부(主簿) 현만규(玄萬奎)와 종9품 부사용(副司勇) 이

위(李渭) 중 누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차상통사 2명은 전 첨정(僉正) 최한진(崔漢鎭)과 전 주부(主簿) 김시량(金是樑)으로 각각 종4품과 종6품에 해당되며, 압물통사 4명은 전 첨정(僉正) 김현문(金顯門), 전 직장(直長) 조득현(趙得賢)과 박태신(朴泰信), 전 참봉(參奉) 김시경(金時璟)으로 각각 종4품, 종7품, 종9품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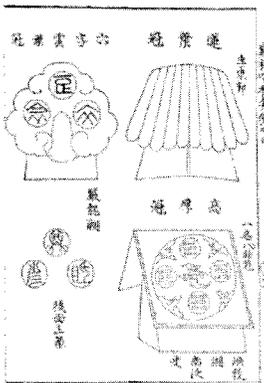
이상의 결과 직무를 기준으로 볼 때 상통사 3명중 2명은 관모①을, 1명은 관모②를 착용하고 있으며, 품계를 기준으로 보면 종6품의 서기 2명은 관모①을, 하위 1명은 관모②를 착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무나 품계를 기준으로 착용에 구분을 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이들 관모는 특별한 구분 없이 혼용된 것으로 보인다. 신원이 확인된 착용자를 기준으로 볼 때, 관모① 착용자는 정3품에서 종6품이고, 관모② 착용자는 종6품과 종9품이므로 관모②를 품계가 낮은 사람들의 관모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착용 관모가 확인되지 않은 8명의 차상통사, 압물통사, 의원 중 2명을 제외한 6명이 종6품 이하이며, 종7품 이하로 좁혀 보아도 4명이 해당되므로 착용자가 확인되지 않은 관모②, 관모③ 착용자 수 3명보다 많다. 따라서 종7품 이하 수행원 중 적어도 1명은 관모①을 착용하였을 것이므로, 품계에 의한 구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조사된 사례의 수가 적어 품계의 고하에 따라 착용 제한이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관모②가 관모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의 관모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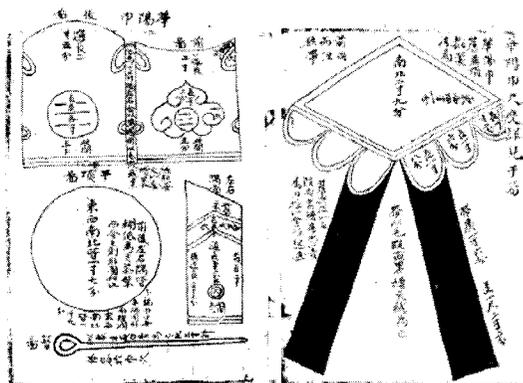
2. 18세기 문집에 나타난 고후관·연엽관

『계림창화집』은 교토[京都]의 유학자 賴尾維賢이 숙종 37(1711)년 파견된 통신사와의 창화시문(唱和詩文)을 채록하여 1712년 5월 간행한 문집¹²⁾인데, 이 가운데 서기·제술관의 이름과 함께 <그림 2>¹³⁾에 보이는 3가지 관모의 그림이 실려 있다. 당시 필담창화에 참여한 문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세 관모의 명칭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관모 그림 위에 기록되어 있다. 오른쪽 위의 것은 '연엽관(蓮葉冠)', 오른쪽 아래의 것은 '고후관(高厚冠)', 왼쪽 위의 것은 '육자운엽관(六字雲葉冠)'으로 나타난다. 그 중 고후관은 관에 구름문양과 함께 괘(卦)가 표현되어 있으며 '일명 팔괘관(八卦冠)'이라 기록되어 있다. 연엽관 옆에는 '이동곽(李東郭)'이라 쓰여 있는데, 이는 『동사일기』 좌목 중 제술관 이현(李璜)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육자운엽관 아래의 '엄용호(嚴龍湖)'는 서기 엄한중, 고후관 아래 '홍경호(洪鏡湖)', 남범수(南泛叟)'는 각각 서기 홍순연과 서기 남성중이다.¹⁴⁾ 『계림창화집』과 「도중행렬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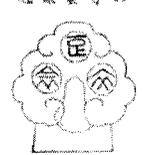


<그림 2> 연엽관, 고후관 등.
雞林唱和集卷之四,
1712, p. 二十二



<그림 3> 화양건. 옥소고, 2007, pp. 289-290.

〈표 4〉 「도중행렬도」, 「계림창화집」에 나타난 관모별 명칭, 착용자 관계 분석

도중행렬도	계림창화집			동사일기			
	관모	관모명	성명	직책	직함	관품	성명
 관모①		고후관 (팔괘관)	홍경호	서기	봉상판관	종5품	홍순연
			남범수	서기	부사과	종6품	남성중
 관모②		연엽관	이동파	제술관	전 좌랑	정6품	이현
-		육자운엽관	엄용호	서기	전 현감	종6품	엄한중

나타난 관모를 비교하면, 〈표 2〉의 관모①은 고후관, 관모②는 연엽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에서 관모②와 동일한 관모의 다른 표현이거나, 독립된 다른 관모일 가능성을 언급한 관모③은 유사한 관모가 〈그림 3〉¹⁵⁾에서 보이듯이 『옥소고(玉所稿)』에 '화양건(華陽巾)'으로 실려 있어 주목된다. 고후관을 착용한 통신사 수행원들의 모습은 영조 39(1763)년 사행의 필담을 엮은 『동사여담』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 4〉는 〈그림 2〉 『계림창화집』에 나타난 관모와 〈표 2〉 신묘사행 「도중행렬도」에 나타난 관모 중 유사한 형태의 것을 비교하여 관모의 명칭을 추정하고, 『계림창화집』에 기록된 성명과 『동사일기』 좌목에 나타난 직책 및 성명을 통해 착용자를 추정한 것이다.

Ⅲ. 18세기 전후 문헌에 나타난 고후관·연엽관 관련 사례 분석

1. 18세기 사행록 분석

앞의 행렬도 분석을 바탕으로 볼 때, 숙종 37(1711)년 사행의 상통사를 비롯한 통사들과 의원, 사자관,

서기, 화원은 고후관, 연엽관 등을 편복 관모로 착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사행록인 『동사일기』와 『동사록』에 이러한 관모의 명칭은 나타나지 않으나, 행렬도와 필담을 엮은 문집에 실린 초상을 보면 편복을 입고 있을 때 고후관·연엽관을 착용하고 있으므로 사행록에 나타난 편복 관련 기록을 살펴보았다.

숙종 37(1711)년의 사행록인 『동사록』의 승선(乘船) 관련 기록에 '삼사 이하 원역이 모두 도의(道衣)와 당관(唐冠)을 착용하였다'¹⁶⁾고 하였다. 그리고 숙종 45(1719)년의 사행록인 『해유록(海游錄)』에는 편복 관모 착용과 관련하여 참고할만한 세 장면이 있다. 첫째, 사신이 봉행(奉行)과 재판(裁判)을 접견할 때 '유관(儒冠)에 도포(道袍)'를 착용하였다는 것,¹⁷⁾ 둘째, 에도 입성할 때 세 서기는 '유의관(儒衣冠)'을 착용했다는 것,¹⁸⁾ 셋째, 제술관과 세 서기가 태학두(太學頭)와 그 아들을 만날 때 '유의관'을 착용했다는 것이다.¹⁹⁾

이상의 기록들에 나타난 '당관'·'유관'의 명칭은 특정 관모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고후관·연엽관 등의 관모를 포함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영조 24(1748)년의 사행록인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에는 수집정(首執政) 아악두(雅樂頭)가 사행의 금관조복(金冠朝服), 사모단령(紗帽團領) 등과 함께 '고후관'을 보기 원한다 하여 보내주는 장면²⁰⁾이 나온다. 이것은 당시 고후관의 착용 사실을 보여주는 것 뿐 아니라, 이 관모가 대표적인 사행 복식 중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18-20세기 초 문헌 분석

『담헌서(湛軒書)』²¹⁾와 『연원직지(燕輶直指)』²²⁾에는 청(淸)나라 도사(道士)들의 의복제도(衣服制度)에 관한 묘사 중 '머리를 묶어 상투를 들고 검은 천으로 관(冠)을 만들어 쓰는데, 앞뒤로 늘어지게 하여 우리의 연엽관과 같다'고 연엽관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임하필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이다. 임금께서 대신들에게 초상화가 있는지 묻자, 영의정이 이유원의 초상에 대해 방조(傍祖)인 이제현(李齊賢) 본을 따라 고려의 관제(冠制)로 그렸더라고 아뢰고, 이유원 본인은 그 모양에 대해 당건(唐巾)이나 연엽관과 비슷하다고 설명하고 있다.²³⁾

20세기 초 중추원조사자료 중 관례(冠禮)에 대한 설명에서 관례를 치르는 사람은 시가(始加) 복식으로 연엽관을 쓰고 소창의(小釐衣)를 입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²⁴⁾ 또한 의식주(衣食住) 설명 부분에서는 머리에 쓰는 것 중 망건 다음으로 연엽관을 정자관(丁字冠)²⁵⁾, 치포관(縑布冠) 등과 함께 언급하며, 유생(儒生)들이 착용한 것으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⁶⁾

이상으로 볼 때 고후관·연엽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관모의 명칭으로 당관과 당건, 유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중국 관모와의 연관성 및 유건의 경우와 같이 유생, 문인(文人)들이 일반적으로 착용했던 관모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엽관의 경우 비록 사행록에서는 착용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18-19세기 당시 미지의 것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사용함으로써 그 이미지를 떠올리

기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착용하던 관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후관의 경우 통신사 관련 기록을 통해 숙종 37(1711)년부터 영조 39(1763)년까지 18세기에 파견된 사행에서 계속 착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관모를 삼사도 착용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숙종 37(1711)년 사행원의 관계(官階)와 관직(官職)을 살펴보면 정3품 상호군부터 종9품 참봉에 이르는 사자관, 서기, 의원, 역관, 화원 등 다양한 직책의 인물들이 착용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고후관의 착용 사례는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영조 14(1738)년 9월 12일의 기록에 임금을 모시고 석강(夕講)에 참석한 세자의 차림으로 '금사고후관(金絲高厚冠)'이 언급되고 있어,²⁷⁾ 이것이 어느 한 계층에 한정된 쓰개가 아니며 착용자의 신분 범위가 상당히 넓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IV. 고후관, 연엽관의 명칭 및 유사 관모 분석

1. 명칭의 유래에 대한 고찰

『승정원일기』 영조 33(1757)년 9월 4일의 기록에 영조는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길보(李吉輔) 등에게 '운장관(雲長冠)·호연관(浩然冠)은 모두 명의(名義)가 있는데, 고후관은 그 명의를 알지 못하는가' 하문하자, 이길보가 '그 고후(高厚) 두 자를 보면 이와 같이 겨울에 착용[冬着]하는데 적합하다 옛 말에 이릅니다'라 답하고 있다.²⁸⁾ 고후관을 겨울용으로 착용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영조 24(1748)년 사행 기록 중 수집정 아악두가 고후관 등을 보기 위해 보내주었다는 날이 6월이므로 겨울용 관모만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고후관은 당시에 명칭의 유래를 알 수 없었으며, 연엽관과 고후관의 경우 형태를 따서 명칭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고후관과 연엽관은 관모의 정수리 부분에 앞뒤로 늘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이 부분이 꽃잎 또는 물결처럼 표현된 것이 연엽관이라면, 맞배 지붕 혹은 책을 펼쳐 엮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고후

관이다. 따라서 18세기 전후에 착용한, 이들과 유사한 형태의 관모를 찾아 관련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고후관, 연엽관과 형태적 유사성을 지닌 관모

1) 민자건

선조 7(1574)년 실록 중 조헌(趙憲)이 질정관(質正官)으로 중국에 가서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돌아와 조선의 제도를 수정해보고자 올린 상소에, 중국의 유건은 민자건(民字巾)이라고도 한다고 언급하며, 조선의 유건인 사건(士巾)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형태는 민(民)자와 같으며, 대[竹]를 엮어 치포(縹布)로 싸거나, 종이에 풀을 발라 만든 뒤 옷칠을 해서 안개나 빗속을 다녀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조헌은 상소와 함께 유건 실물을 갖추어 올렸으나, 선조는 조헌의 상소에 대해 중국과 조선의 풍속이 다르므로 무리한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²⁹⁾ 그 당시에 제도를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자건에 대한 내용은 『성호사설(星湖僿說)』 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생도(生徒)의 치건(縹巾)을 민자건이라 하고, 그 모양이 뒷면은 마치 벽처럼 깨끗하게 서서 굽혀지지 않고, 위를 조금 굽혀 숙여서 앞면이 되도록 하면 남은 폭이 양쪽 옆으로 벌어져 귀가 되는데, 이 양쪽 귀를 반 접어서 판판하게 하면 민자의 모양처럼 되는 까닭에, 세속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앞뒷면을 바꿨으니 해괴한 일이라 비판하고 있다.³⁰⁾

이로 보아 여기에 언급된 중국의 유건, 민자건은 『삼재도회』에 실린 유건과는 다른 형태로, 이를 착용하면 앞쪽으로 판판한 면이 늘어진 모습이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늘어지는 것이 뒤로 가도록 착용하는 경우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조헌의 경우 민자건을 조선의 유건인 사건과 구분하고 있으나, 이익은 민자건과 사건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민자건의 앞뒤를 뒤집어 쓴 것으로 보아 비판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민자건은 앞서 살펴본 고후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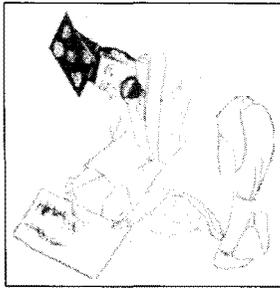
비슷한 형태이나, 고후관이 앞뒤로 모두 늘어진 것이 있는데 비해 한 쪽에만 늘어진 것이 있어 차이를 보인다. 『동사여담』에는 <그림 4>³¹⁾와 같이 민자건 설명과 형태가 유사한 관모를 쓴 수행원 그림이 있어 주목된다.

2) 순양건, 화양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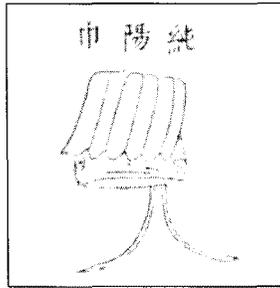
순양건(純陽巾)은 도교의 도사(道士)가 쓰는 9종류 두건³²⁾ 중 하나이다. 순양건의 모습은 『삼재도회』에 <그림 5>³³⁾와 같이 실려 있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그림 아래에는 정수리 부분에 1촌 너비로 죽간(竹簡)처럼 주름을 잡고 뒤에서 늘어뜨린 것으로, 팔선(八仙)의 하나인 여동빈(呂洞賓)의 호 순양자(純陽子)를 따서 순양건이라 하고, 당(唐)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의 자(字) 낙천(樂天)을 따서 낙천건(樂天巾)이라 부르기도 한다고 설명되어있다. 그리고 여동빈 도상의 특징은 화양건을 쓰고 도복을 입은 유생(儒生)의 모습으로 검선(劍仙)이라는 이칭에 어울리게 보검(寶劍)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되며,³⁴⁾ <그림 6>³⁵⁾과 같이 두건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표표건(飄飄巾)으로 부르기도 한다.

모자는 삼각형 지붕모양을 하고 모자의 등마루 앞뒤에 각 한조각 장방형 자락이 있으며, 선비의 우아한 풍채를 갖추고 있어 명(明)나라 말기에 유행하여 사대부 자제들이 즐겨 착용하였고, 표표건과 순양건의 형태는 비슷한데 순양건에 큰 구름 무늬[盤雲紋]가 있어 차이를 보인다³⁶⁾고 하였다.

이렇듯 표표건·순양건·화양건·낙천건은 기본적인 형태가 유사하며 사대부가에서 착용하던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고후관 형태의 것은 <그림 7>³⁷⁾, <그림 8>³⁸⁾과 같이 표표건·화양건이라 하거나 순양건·유건³⁹⁾ 등으로 보기도 하고, 연엽관 형태의 것도 <그림 9>⁴⁰⁾와 같이 순양건·화양건 등으로 칭하여 명칭이 혼용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⁴¹⁾ 다만 신선도나 『삼재도회』에 표현된 건은 부드러운 질감을 보이는 데 비해, <그림 8>의 「하완순(夏完淳)상」이나 명(明) 말기 증경(曾鯨)이 그린 「장경자(張卿子)상」 등 인물의 건은 딱딱한 질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차이가 나타난다. 복두(幘頭)의 경우와 같이 연질(軟質)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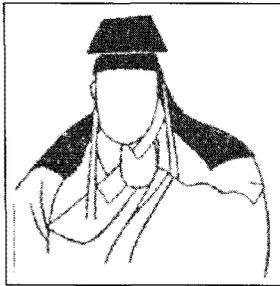
〈그림 4〉 화원 김유성, 東槎餘談, 1764, p. 寫眞六



〈그림 5〉 순양건, 삼재도회4, 2004, p. 1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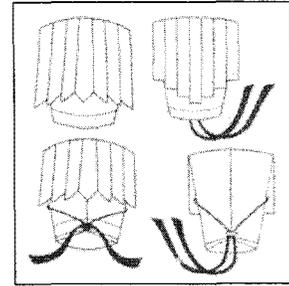
〈그림 6〉 김득신, 신선도 (부분), 호암미술관명품도록, 1982, p. 261.



〈그림 7〉 표표건, 中國歷代服飾藝術, 1999, p. 363.



〈그림 8〉 화양건, 中國服飾通史, 2002, p. 440.



〈그림 9〉 화양건左, 순양건右, 中國服飾通史, 2002, p.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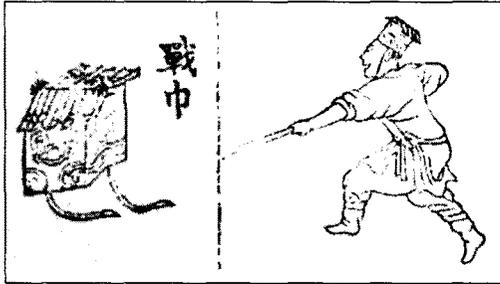
경질(硬質)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헌에 나타난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부터 왕손인 원자(元子)에 이르기까지 순양건, 화양건⁴²⁾ 착용자의 범위가 넓게 나타나고 있다. 즉,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이 순양건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낸 일화를 소개하며, 옛사람들은 높은 관직에 있더라도 마음은 산림에 있었기에 야인(野人)의 복장을 좋아했고 다른 사람에게 권한 것이라 언급하였다.⁴³⁾ 또한 영조 24(1748)년 사행록인 『봉사일본시문견록』 중에는 일본의 관복(官服)을 묘사하면서 우리나라의 화양건과 같은 것이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⁴⁴⁾ 정조 15(1791)년 실록에는 원자의 돌잔치 관련 기사에 원자가 사유화양건(四旂華陽巾)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⁴⁵⁾, 이는 명칭을 바탕으로 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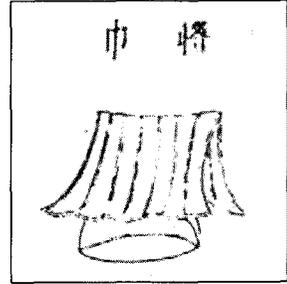
화양건의 일종으로 보인다.

3) 전건, 장건

정조 14(1790)년 간행된 『무예도보통지』에 실린 전건(戰巾)〈그림 10〉⁴⁶⁾은 보군(步軍)으로서 장창(長槍) 등의 기예를 익히는 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⁴⁷⁾ 또한 『만기요람(萬機要覽)』의 「군정편(軍政編)」을 참고하면 훈련도감(訓練都監)의 초군(哨軍)은 모단(冒緞)으로 만든 전건을 쓰는데, 앞과 뒤가 네모나고 골게 내려갔으며, 모두 금(金)으로 감웃 비늘 모양[札]을 그렸다고 묘사되어 있다.⁴⁸⁾ 『만기요람』에는 이밖에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의 군기(軍器)에 모단전건(冒緞戰巾)이 포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⁴⁹⁾ 전건의 재료로서 '모단'은 기록에 따라 '冒段', '冒緞', '帽緞', '毛緞'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림 10〉 전건. *무에도보통지*, 1970, p. 603, p. 87.



〈그림 11〉 장건. *삼재도회4*, 2004, p. 1515.

모단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전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모단 관련 기록을 살펴보았다. '冒緞'으로 기록된 경우는 정조 17(1793)년 비변사가 올린 의주 상인의 변경 무역에 관한 금령 규정 내용 중에서 한부단(漢府緞), 공단(貢緞), 팔사단(八絲緞)과 함께 고가의 직물로 거론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으며,⁵⁰⁾ '帽緞'으로 기록된 것은 정조, 순조, 헌종의 왕비 책봉 예물에 대망단(大蟒緞), 장단(粧緞), 금단(錦緞) 등과 함께 나타났다.⁵¹⁾ 이러한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모단이 고급직물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군사들의 전건 착용 규정 뿐 아니라 인조 22(1644)년 실록 중 모반사건에 대한 문답에서 무기 만드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다른 사람 말에 의하면 활과 화살, 전건이 많이 있었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⁵²⁾ 등으로 보아 전건을 군사의 상징으로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연경재전집(研經齋全集)』에서는 오영(五營)의 군사가 쓰는 장건(將巾)은 속칭 전건이라 하며, 이는 찰건(紮巾)이라고 기록하고 있다.⁵³⁾ 이것으로 장건과 전건, 찰건은 동일한 관모의 다른 이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삼재도회』에 실린 장건의 모습은 〈그림 11〉⁵⁴⁾과 같다.

광해군 13(1621)년 실록에는 재신 김지남이 명나라 차관(差官)의 하마연(下馬宴)에 대해 보고하면서, 차관이 전건과 편복(便服)을 입고 있었다고 하였다.⁵⁵⁾ 17세기 초 명나라 관리가 착용한 관모를 '전건'으로 인식하여 보고한 것으로 보아 당시 전건이 조선 사회에 알려져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군사가 아

닌 관리가 착용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전건·장건은 군사들이 착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민자건, 순양건·화양건과 구별된다.

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18세기 통신사행을 그린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유건과 유사하나 모정에 지붕을 얹은 듯 앞뒤로 늘어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표현된 관모에 의문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회화자료로 숙종 37(1711)년 쓰시마번 소속 화가 다와라 기자에몬이 그린,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도중행렬도」를 분석하여 관모의 종류와 착용자를 조사하고, 당시 사행록인 『동사일기』에 나타난 인물별 관계와 관직 기록을 통해 관모 착용자를 분석하였다. 또한 18세기 전후 문헌을 통해 유사 관모 착용 사례를 수집, 분석하였다.

「도중행렬도」에서 편복 관모 착용자 및 착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29명이었으며, 가마를 타서 쓰개의 형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9명을 제외한 20명의 관모를 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표 2〉와 같이 3종류로 나뉘었다. 그 중 관모①과 관모②는 교토에서 발행된, 숙종 37(1711)년 파견 통신사와의 창화시문을 엮은 문집인 『계림창화집』에 실린 관모 그림을 통해 각각 고후관, 연엽관으로 추정하였다. 관모③의 경우 『옥소고』에 실린 화양건과 형태가 유사하나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후관과 연엽관 착용자는 「도중행렬도」 분석 결

과 정3품 상호군으로 기록되어있는 사자관 2명부터 종6품의 전직 현감 또는 부사과 등으로 기록되어 있는 서기를 비롯하여, 종9품의 전직 참봉으로 기록된 압물통사 등 신분이 높고 낮은 중인 계층과 문관 등 다양한 직책의 인물들로 나타났다. 그리고 착용자 분석결과 신분이나 직책에 따라 두 관모의 착용에 구분을 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였다.

고후관, 연엽관 명칭은 18세기 당시에도 유래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형태를 근거로 한 명칭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관모들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시 착용된, 유사한 형태의 관모를 조사한 결과 민자건, 순양건·화양건, 전건·장건 등이 나타났다.

민자건은 유건의 한 종류로 뒷면은 깨끗하게 서고 위를 굽혀 앞으로 숙여 민자 모양이 되게 한 것으로, 고후관이 앞뒤로 모두 늘어진 것이 있는데 비해 민자건은 한 쪽에만 있어 차이를 보인다. 순양건·화양건은 도교 팔선의 하나인 순양자 여동빈의 이름을 딴 것, 또는 그가 즐겨 착용하였다고 알려진 것이다. 두건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표표건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기본 형태는 모자가 삼각형 지붕모양으로 등마루 앞뒤에 장방형 자락이 있다. 구름 문양이 있거나, 앞뒤 자락이 판판한 것, 죽간처럼 주름을 잡은 것 등이 있으며, 선비의 우아한 풍채를 갖추어 명나라 말기에 사대부가에서 유행하였다. 전건·장건은 군사들이 착용한 관모로, 모단으로 앞과 뒤가 네모나고 곧게 내려가게 만들고, 금으로 갑옷 비늘 모양을 그렸다. 문헌에 나타난 그림을 참고하면 앞뒤 자락에 주름을 잡은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 열거한 관모는 사대부부터 왕실의 원자에 이르기까지 착용자의 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고후관·연엽관은 의원, 역관, 화원, 서얼 출신의 문관 등을 비롯해 사대부, 왕실의 세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착용된 것으로 보아, 신분에 크게 구애되지 않고 선비의 풍모를 나타내는 유관(儒冠)의 하나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후관·연엽관을 당시 조선에서 착용한 유사 형태의 관모인 민자건, 순양건·화양건, 전건·장건 등과 비교한 결과, 청나라 도사의 관모가 연엽관과 같다고 한 기록이나 관모의 형

태, 착용자의 성격 등에서 순양건·화양건이 가장 고후관·연엽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고후관·연엽관은 이들 관모를 기초로 하여 조선에서 변형되어 발달된 것일 수도 있으며, 같은 관모를 명칭만 다르게 부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모정에 지붕을 얹은 듯한 형태의 관모류에 주목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 파악을 시도한 것에 의미를 둔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관모 사이의 관계를 보다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본 연구가 그 바탕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본 연구에서는 통신사들이 남긴 일기 형식의 기록을 사행록(使行錄)이라 지칭한다.
- 2) = 소군[將軍]
- 3) 차미애 (2006). 江戸時代 通信使登城行列圖. *미술사연구*, 20, p. 273.
- 4) 궁민복 (1983). *조선통신사 복식의 일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자연 (2005). 조선통신사일행의 의례와 복식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학회*, 8(1), pp. 19-30; 신혜성, 박선희 (2007). 통신사 기록을 통한 단령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 *복식*, 57(10), pp. 99-111; 이주영 (2008). 18세기 조선통신사행의 삼사신·상상관·상관 복식 고찰. *지역과 역사*, 23, pp. 35-70 등.
- 5) 진미희 (1985). *조선시대 남자 편복관모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순제 (1993). *우리 관모의 시말에 관한 연구: 남자 편복 관모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등.
- 6) 이은희 (1986). *조선조 후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정, 강순제 (2007). 갑투에 관한 연구. *복식*, 57(6), pp. 112-121.
- 7)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국사편찬위원회 (2005). *조선시대 통신사 행렬*. 조선통신사문화사업회·국사편찬위원회, pp. 10-82.
- 8) 정은주 (2006). 正德元年(1711) 朝鮮通信使行列繪卷연구. *미술사논단*, 23, p. 212-217; 차미애. *앞의 책*, p. 290.
- 9) 숙종37(1711)년의 『동사일기(東槎日記)』, 『동사록(東槎錄)』, 숙종45(1719)년의 『해유록(海遊錄)』, 영조24(1748)년의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 영조39(1763)년의 『해사일기(海槎日記)』, 『일본록(日本錄)』, 『일관기(日觀記)』, 『승사록(乘槎錄)』
- 10) = 상통사(上通事)
- 11) 사행원 중 의술을 담당하는 사람은 양의, 의사 또는 의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증정교린지(增正交隣志)』에 의하면 양의 1명과 의원 2명을 파견하는데, 양의는 일본 요청에 의해 의술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파

- 전한 것이고, 의원 2명은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에서 각 1명을 뽑은 것이다. 『동사일기』에 의하면 숙종37(1711)년 신묘사행 때 의원은 3명으로, 정사 소속 가정의원 전 직장(直長) 기두문(奇斗文), 부사 소속 의원 전 주부(主簿) 현만규(玄萬奎), 종사 소속 의원 부사용(副司勇) 이위(李渭)이다. 『동사록』에는 그 중 정사 소속의 기두문이 양의로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직장은 종7품, 주부는 종6품, 부사용은 종9품에 해당되므로, 관품이 높은 사람이 양의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12) 이원식 (1991). *조선통신사*. 서울: 민음사, p. 63.
 - 13) 賴尾維賢 (1712). *雞林唱和集卷之四*. 二十二.
 - 14) 이원식. *양의 책*, p. 39. 조선통신사일람표 참고.
 - 15) 권섭. *옥소고*, 이창희 외 편 (2007). *옥소고 9* 서울: 다은샘, pp. 289-290.
 - 16) 김현문. *동사록*. 백옥경 역 (2007). *동사록*. 서울: 해안, p. 68, p. 264.
 - 17) 신유한. *해유록*. 민족문화추진회 (1977a). *해행총재 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405(五三).
 - 18) *위의 책*, p. 522(六九).
 - 19) *위의 책*, p. 528(七〇).
 - 20) 조명채. *봉사일본사문견록*. 민족문화추진회(1977b). *해행총재 X*.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80(四〇).
 - 21) 홍대용. *담헌서*. 민족문화추진회(2008b). *홍대용 담헌서 5* 파주: 한국학술정보, p. 198.
 - 22) 김경선. *연원직지*. 민족문화추진회(1977c). *연행록선집 X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230.
 - 23) 이유원 (1871). *임하필기*. 김동현, 안정 공역 (2000). *임하필기6*.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09(四一).
 - 24) 중추원조사자료. 관례(冠禮). 자료검색일 2009. 9. 28. 자료출처 <http://www.history.go.kr>
 - 25) 정자관(程子冠)의 오기(誤記)인 것으로 보인다.
 - 26) 중추원조사자료. 의식주. 자료검색일 2009. 9. 28. 자료출처 <http://www.history.go.kr>
 - 27) 승정원일기. 영조14(1738)년 9월12일(신유). 자료검색일 2009. 8. 31. 자료출처 <http://sjw.history.go.kr>
 - 28) 승정원일기. 영조33(1757)년 9월4일(계사). 자료검색일 2009. 8. 31. 자료출처 <http://sjw.history.go.kr>
 - 29) 민족문화추진회 (1989). *선조수정실록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214-224(四八-五一). 선조수정실록7(1574)년 11월1일
 - 30) 이익. *성호사설*. 민족문화추진회(1978). *성호사설I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252(七三).
 - 31) 宮瀨龍門 (1764). *東槎餘談*. 寫眞六.
 - 32) 장언푸 저, 김영진 역 (2008). *한 권으로 읽는 도교*. 서울: 산책자, p. 193.
 - 33) 王圻. *三才圖會*. 왕기 (2004). *삼재도회4*. 서울: 민속원, p. 1515.
 - 34) 백인산 (2009). 조선왕조 도석인물화. *간송문화 77호*, pp. 109-110.
 - 35) 삼성미술문화재단 편 (1982). *호암미술관명품도록*. 서울: 삼성미술문화재단, p. 261.
 - 36) 周錫保 (1984). *中國古代服飾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p. 403
 - 37) 黃能馥, 陳娟娟 (1999). *中國歷代服飾藝術*. 北京: 中國旅遊出版社, p. 363; 陳高華, 徐吉軍 (2002). *中國服飾通史*. 寧波: 寧波出版社, p. 456.
 - 38) 陳高華, 徐吉軍. *위의 책*, p. 440.
 - 39) 周錫保. *양의 책*, p. 403;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 (1997). *中國歷代服飾*. 上海: 學林出版社, p. 253.
 - 40) 陳高華, 徐吉軍. *양의 책*, p. 440.
 - 41) 周錫保. *양의 책*, p. 403; 上海市戲曲學校中國服裝史研究組. *양의 책*, p. 253; *위의 책*, p. 440, p. 456.
 - 42) 화양진은 권섭의 『옥소고』에서는 평정건의 형태로 나타나고, 陳高華, 徐吉軍(2002)은 고후관, 연엽관 형태의 것을 모두 화양건으로 표시하기도 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 43) 이유원. *양의 책*. 안정, 김동주 공역 (2000). *임하필기 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6(六).
 - 44) 조명채. *양의 책*. 민족문화추진회 (1977b). *양의 책*, p. 265(五九).
 - 45) 민족문화추진회 (1993a). *정조실록 16*.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56(三三). 정조15(1791)년 6월18일.
 - 46) 이덕무, 박재가 (1790). *무예도보통지*. 이덕무, 박재가 (1970). *무예도보통지*. 서울: 학문각, p. 87, p. 603.
 - 47) 정조. *홍재전서*. 민족문화추진회 편 (1998). *국역 홍재전서 7*.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211.
 - 48) 민족문화추진회 (1971). *국역 만기요람*.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240.
 - 49) *위의 책*, p. 284, p. 316, p. 357.
 - 50) 민족문화추진회 (1993b). *정조실록19*.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107(二一). 정조17(1793)년 11월17일.
 - 5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1). *정조실록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133(二七). 정조즉위(1776)년 10월27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2). *순조실록3*.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51(九). 순조3(1803)년 윤2월27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90). *헌종실록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 134. 헌종3(1837)년 9월12일.
 - 52) 민족문화추진회 (1990). *인조실록19*.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p. 87-89(十七). 인조22(1644)년 10월27일.
 - 53) 상해용. *연경재전집*. 민족문화추진회 편(2001). *한국문집총간277-연경재전집V*.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242.
 - 54) 王圻. *위의 책*. 왕기. *위의 책*, p. 1515.
 - 55) 민족문화추진회 (1993c). *광해군일기24*.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p. 96(二五). 광해군13(1621)년 9월14일.